

인구의 노령화와 사회복지정책

의

학의 발전과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인구의 20%선에 이르고 있고, 21세기 초반에는 25%에 달해서 인구 네 명 중 한 사람이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는 노인인구가 6.6%, 2022년에는 13.2%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그 사회에 경제, 의료, 주택문제 등에서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따르는 재정부담,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면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도 조차 이런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모로 취약점이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를 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독지가들이 베푸는 행위 정도로 생각했다가 인구의 노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여, 노인복지는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와 의료 등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文太俊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수입이 감소하며,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노인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고령 퇴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연금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노령화는 모든 인간에게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수입이 감소하며,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은퇴후에 발생하는 생활비는 개인 저축으로 얻은 수입이나 자식들의 보조가 주가 되겠지만 연금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기본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발족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의 수혜자는 약 17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급액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기금관리 개선의 통하여 고령 퇴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일생 동안 지출되는 총의료비의 80%가 65세 이후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만큼 노인에 대한 의료비는 과중하며, 특히 말기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는 큰비용이 소요된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자기 부담이 지나치게 큰 제도하에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제도적으로 분리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될 것

이며,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률이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정액지불로 운영되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치의제도는 1차 진료 차원에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웃 단골의사로서의 친밀감과 높은 신뢰로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평균 병원 입원일수가 4~6일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30일에 가까운 것은 노인환자들이 조기퇴원보다는 병원의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래에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호(介護)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자녀의 수가 적어져 부모를 모시는 것이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맞벌이와 직장의 이동 등으로 부모,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치매 환자들에 대한 개호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어 방치할 때는 큰 사회적,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우미, 방문 간호사와 간병인 등의 양성과 훈련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노령에 대비하도록 하는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 또는 문화센터 등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문화와 체육 활동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식의 부양의무 권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시설은 수적이나 질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 유료와 무료 노인시설의 건립이 지금부터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장점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홈의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 최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별 경험이 없다.

전국에 2만 1천여 개소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이용면에서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적고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노인복지관 또는 문화센터 등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문화와 체육 활동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식의 부양의무 권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에게 상속에서 우대하는 정책은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 능력이 있으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공적부담이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싱가포르의 제도를 연구해서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덕은 학교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응분의 대접을 받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실행여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재정투입에 대한 위정자의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에 대한 호칭은 바뀌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이 호칭을 좀더 존경을 표시하고 따뜻한 느낌을 지니는 호칭으로 최근 실시한 '노인의 새 호칭 현상 공모'에서 '어르신'을 당선작으로 선택한 바 있다. '어르신'은 사회에 대한 공헌과 경륜을 나타내는 순우리말로써 이 호칭을 통하여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늙어 가고 있으며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